| 현불 논단 |

국자 같은 삶을 살겠는가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사람 이외 존재들은 대체로
자기 현실 영역서만 살아가
지구 건너편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고 슬퍼한 건 사람뿐

국자가 국 맛을 알지 못하듯
고정관념 속 세계서 살거나
세상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세간에 살든 출세간서 살든
세상 맛을 알아야 참 수행자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그 마음의 작용이 넓고 가이없는 까닭일 것이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품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지구와 태양계를 비롯하여 온 우주를 다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

사람 이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현실적 영역 안에서만 살아간다. 그들의 발자국과 그림자가 미치는 범위가 그들의 세상인 것이다.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얼마나 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옛 스님의 법문에 '마음이란 크게 쓰려고 하면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넉넉한 여유가 있고, 작게 쓰자면 바늘 끝 하나도 세울 자리가 없다' 는 말씀이 이런 것이다.

때로 지구 저 건너편의 기쁜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느 곳인지 알지도 듣지도 못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연민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한없이 넓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열린 감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다.

물론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발자국과 그림자 안에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마음도 감각도 다 통제하고 억압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국자의 비유'를 들어 깨우침을 주신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이를 친하는 것은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래도록 가까이 하여도 그 법을 알지 못하네. 어진 이가 지혜로운 이를 친하는 것은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알 수 있듯이 비록 잠깐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아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만 자신과 자기가족의 이익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뿐,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고 모든 감각을 막아버리고 냉담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국자'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보면 온통 성현의 말씀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안전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따뜻하고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어째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국자같은 사람이 되어가서야 되겠는가.

백 년을 살더라도 국자처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오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만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사는 의미와 가치를 터득한다면 무슨 미련과 아쉬움이 있을 것인가. 본래 국자 같은 사람도 혀 같은 사람도 없다. 자신의 마음과 감각을 열면 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과 감각을 닫아버리면 국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흔히 스님들을 '부모형제와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 냉정한 사람' 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떠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출가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깊은 자비심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품은 따뜻한 사람들이 스님이고 출가인이다.

수행자는 국자같이 무감각하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삶을 떠나 진정 세상의 아픔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선 사람들인 것이다. 실로 세상에 살거나 산중에 살거나 달고 짜고, 쓰고 맵고, 시고 떫은 세상 사는 맛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이다.

社 說

만일결사로 코로나 극복을

일반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21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1만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하루하루 일상 속에 쌓여 습이 되고 성격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삶 그 자체로 습합될 것이다. 1만일은 개월로 환산할 경우 27년 5개월에 달하는 긴 시간이다.

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 삼칠일(21일), 100일, 1000일 등 기간을 정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매일매일 지속하는 기도의 힘으로 삶의 변화를 이끈다는 의미가 담겼다. 불교계에서 진행 중인 만일결사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90년대 정토회와 전국염불만일회를 비롯, 각 사찰이 만일결사에 돌입했다. 한국불교 신행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불교를 주창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기에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만일결사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비대면 문화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만일결사는 이제 일상 속 수행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 또한 없다. 각자의 공간에서 결사에 동참하되 함께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결사도반들이 원력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루가 모여 100일이 되고 100일이 모여 1000일이, 1000일이 모여 1만일이 된다. 한가지 결사를 선택해 하루 30분, 1시간이라도 실천한다면 100일 뒤, 1000일뒤 삶은 예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모두가 힘든 시기. 한국불교 전통을 잇는 만일결사로 나와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발을 내딛어보면 어떨까.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해야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그간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을 들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한국의 과거에 비추어 본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환영보다 우려와 비판이 많다.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던 단체들이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미덥지 않다는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눈가리고 아웅식 대응' 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의 중요성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제도와 정책으로 탄소중립을 꾀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차원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국민 개개인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관중심으로 구성했고, 국회는 탄소중립법안을 비공개로 상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졸속추진' 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급격한 변화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토대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관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 보다 효율적일 수는 있다. 반대로 졸속행정으로 인해 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관이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남방불교의 우안거

마하위하라는 7월 보름부터 우안거(왓사와소, Vassāvāso)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안거는 남방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동안거, 하안거와 같습니다. 한국은 1년에 2번 안거를 지내지만 남방에서는 한번, 3개월 동안 우안거를 행합니다. 동남아에서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기에 우기에 행하는 우안거가 중심을 이룹니다.

빠알리어로 우안거는 왓사와소(Vassāvāso)라고 합니다. 인도 및 동남아 등의 불교 문화권에서는 우기에 수행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 기간에 스님들은 자유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불교도(비구, 비구니)가 안거를 지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안거를 지내지 않으면 계를 어기는 것이며 안거를 지내야 스님으로서 법랍이 올라가게 됩니다.

매년 아살히(Āsāḷhī)달의 보름(포살) 다음 날부터 우안거가 시작됩니다. 곧 매년 비구, 비구니들은 대략 7월경 ~ 10월경까지 3개월을 한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외출은 허용하지만 반드시 그다음 날 새벽 동트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외출할 때 무조건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율장에 의하면 전달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우안거에 7일간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동료들이 아플 경우, 비구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동료를 도우러 가는 경우, 법계로 인해 걱정하는 비구를 도우러 가는 경우, 잘못된 견해에 빠져든 동료를 바로잡기 위해 가는 경우입니다. 아살히 보름날 우안거를 전기 우안거라고 합니다. 그 때 참여 못 한 스님께서 한 달 뒤에 우안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후기 안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님께서 까티나(kaṭhina, 가사공양)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가자들이 '후기 우안거를 지낸 스님들에게도 가사를 보시하겠다' 고 하면 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없을 경우는 주어도 받지 않거나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거(安居)를 지내지 못하거나 안거가 깨지는 경우에는 가사를 보시하는 '까티나 치와라' 법회를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안거를 깨면 그릇된 행위(惡作, 둑까따, dukkaṭa)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해 동안 비구 계율을 드릴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안거 전 날에 저녁에는 마을 신도들이 사찰에 모여 앞으로 3개월 동안 우안거에 들어감을 청하기 위해 가사를 만들 옷감을 보시하며 초대합니다. 그 다음 날(보름) 낮에 비구들이 모두 포살당(布薩堂)에 모여 포살의 의례를 행합니다. 그 이후 사찰에서 법회를 열어 스님께서 안거에 대해서 설법하며 정진을 다짐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도들 중에는 계를 받고 같이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에 신도들은 스리랑카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주말에는 스님들께 공양올리고 저녁 때 예불 후에 차 공양 올립니다. 직장인들은 안거기간 평일에 공양은 직접 못 올리지만 공양금을 보시하는 방식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저녁 예불 시간에 축원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난해에 온라인으로 예불과 축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